■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바른생활 전도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17절

Tag: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벧전2:11-17)

베드로전서 2장에는 바른생활 전도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요즘처럼 개신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때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우리가 더 특별히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면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죄를 지을 때 비방거리가 된다는 뜻이다. (윤미향권사, 남편은 국보법 위반, 종북주의자)

세상 사람들도 온전한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사모한다.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더라도, 기독교인마저 세속적으로 사는 것을 보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 세속적인 사람들보다는 기독교인을 더 비방한다.

왜냐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망이신 것과 같은 문맥이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도 있지만,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음식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타락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 결과는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마치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흔히들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소금과 같은 삶이 일조 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갖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경건생활을 소중히 하였고, 그로 인해서 한국사회는 점점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다.

물론 오래 전부터 북한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한국교회를 향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지만,(북한은 세계 기독교 박해국 1위를 오래도록 유지함)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꾸준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었다.
물론 이단이 할거, 교단의 분열, 교리다툼, 교회성장학적 가치관 등으로 세속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값싼 구원과 기복신앙으로 율법적인 경건생활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부작용도 작용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박해가 한국교회의 무분별한 기복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측면도 있었다. 아무튼 근거 없는 박해는 있을 수 없으므

로 한국교회 속에 감추어 있었던 비리들이 들추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비리들은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은 아니고, 오히려 선으로 포장된 비리나 다름이 없으므로 회개하고 근절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면 성경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른생활 전도에 관한 어떤 지혜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자.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먼저 이 세상 살이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거류민과 나그네이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세상은 내집이 아니고,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다.

-나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집으로 간다.

-나그네란 외국인 노동자를 뜻한다. 즉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외국인 셈이다. 아니면 이중국적자라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이 말의 뜻을 기독교인들은 부동산을 매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풀어서는 않된다.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신앙고백이 중요하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한 곳은 아니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듯이 선행을 쌓고, 구제를 쌓고, 자신의 몸과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는 것이다.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는 꾸준히 비방을 받아왔다.

-심지어는 독선적 교리 때문에라도 그래왔다.

-종교적 갈등도 있고, 정치적 갈등도 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악한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괴롭힘이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심지어는 비방하는 자들까지 저들의 비방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도록 힘써야 한다.

-비방이 채찍되어 우리가 더욱 행실을 선하게 가지도록 자극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비방을 비방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행에 몰두할 때 그들은 기독교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악법도 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주를 위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후 기독교는 정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다. 다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강력하게 대항하였다.

-왜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그 나라의 통치 형태가 어떻든 최고 권력자에게 순종하라는 뜻이다.
-오늘날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이므로, 오히려 공직자가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도 얼마든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거슬러 감정대립까지 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준석의 말이 대부분 맞는 말이지만, 한가지 빠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다.
-순종하는 태도는 특히 유교적 가치관이 분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신호위반 고지서에 보면 운전수 옆자리는 가려져 있다. 만약의 불륜을 미리 감추자는 의미이다.
-이렇듯 얼마든지 우리의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쓸 수 있으나, 자유의 기본적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악을 맘껏 저지르는데 사용하는 것이 자유는 아니다.
-그 자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선행)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다짐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 힘을 도와 주시고, 세속적인 모든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 주소서.
국정이 어지럽고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선행이 더욱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광복절과 한국기독교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10절

Tag: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7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5:1-10)

*광복의 의미-회복을 뜻한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부활은 아니다.

-북한은 김씨 왕조의 탄생으로 해석했다. (당시 유행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공산당을 위한 체제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철저히 인본주의였고, 다수 인민들의 의견 보다는 선동과 독재로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광복을 통해서 백성에서 시민으로, 노예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다.
-다행히 이승만대통령으로 인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나라가 건국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조선 말기부터 주로 미국에 의해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유교와 불교적 영향력, 한국인의 정서와 부합하면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졌고, 오순절 운동의 여파로 인해서 신앙운동, 계몽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뒤 이어 나라사랑 재건운동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운동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좌파운동, 주체사상에 이르기까지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운동의 중심에는 경쟁의식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를 다스리던 일본은 나름대로 신국으로서의 자부심이 컸었고, 우리 나라 사람을 신민으로 편입시켰다.
-처음에는 여기 저기에서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에는 몇몇 소수 사람들을 제외하면 광복의 즈음에는 일본식 삶에 거의 익숙해지던 시기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광복에는 외세 열강의 도움이 컸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이승만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가치가 주류가 되었고, 기타 좌파나 공산주의 운동은 비주류가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와이에서 지속적인 독립계몽운동이 있었고, 상해를 중심으로는 공산주의식 국가 건설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전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아무도 북한을 김일성이가 차지하게 될 줄은 몰랐다.
-러시아가 종전 7일 전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만주와 사할린 지역으로 진군하면서 승전국이 되었고, 합법적으로 38선 이북의 통치권을 얻게 되었다.

-북한의 기독교는 남한보다 훨씬 그 세력이나 구심점이 컸고, 공산주의 정권과 맞서서 심각하게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6.25 발발 이전에 남한으로 망명하는 인사들이 많았고, 전쟁을 전후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들이 산업화의 주역들이다.
-즉, 북한의 엘리트들이 모두 남한으로 빠져 나갔고, 북한에는 인재가 부족한 현상이, 남한에는 인재가 넘쳐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전쟁 이후 약 15년이 지난 후부터는 이 차이가 극명해졌다.
-남한에서는 탈 한반도 증상도 꾸준하였고, 교회에서는 해외선교에 적극적이어서 디아스포라 운동이 활발해져서 오늘날의 선교 강국이 되었다. 한국형 선교지는 곧 일터였다.

이승만 연혁
1904년 고종 폐위 음모 혐의로 징역. 미국으로 출국.
1910년 조지 워싱턴 대학 컬럼비아학부
하버드대학 석사과정 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졸.
1920년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취임.
1934년 뉴욕에서 프란체스카 도너와 결혼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신탁통치 가결. 이승만 대통령 극렬하게 반대.
-1946년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정부 수립을 건의함.
-1948년 UN에서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
-1948 5.10 이승만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장에 당선.
-7.17 대통령 중심제 헌법공포.
-8.15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1950년 6.25 발발
휴전 반대-분단을 막을 유일한 방법.
아이젠하워 대선에서 휴전 공약. 이승만 제거작전 추진
아이젠하워 이승만의 휴전 조건 수락.

(한미 상호 방위조약, 장기 경제원조 및 2억달러 공여, 한국군 증강 계획 지속, 한미고위급회담 정례화)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싸워서 이기기보다 평화를 얻는 게 더 어려웠고, 적군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더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유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 프린스턴대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육수준, 동서학문에 대한 박학함, 지식의 깊이, 역사의식, 청년기 문제의식, 글로벌 리더로서의 수준, 국가철학, 위기극복 지도력 등에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글로벌급 대통령. 유일.
(사사오입과 3.15 부정선거. 이기붕)